

O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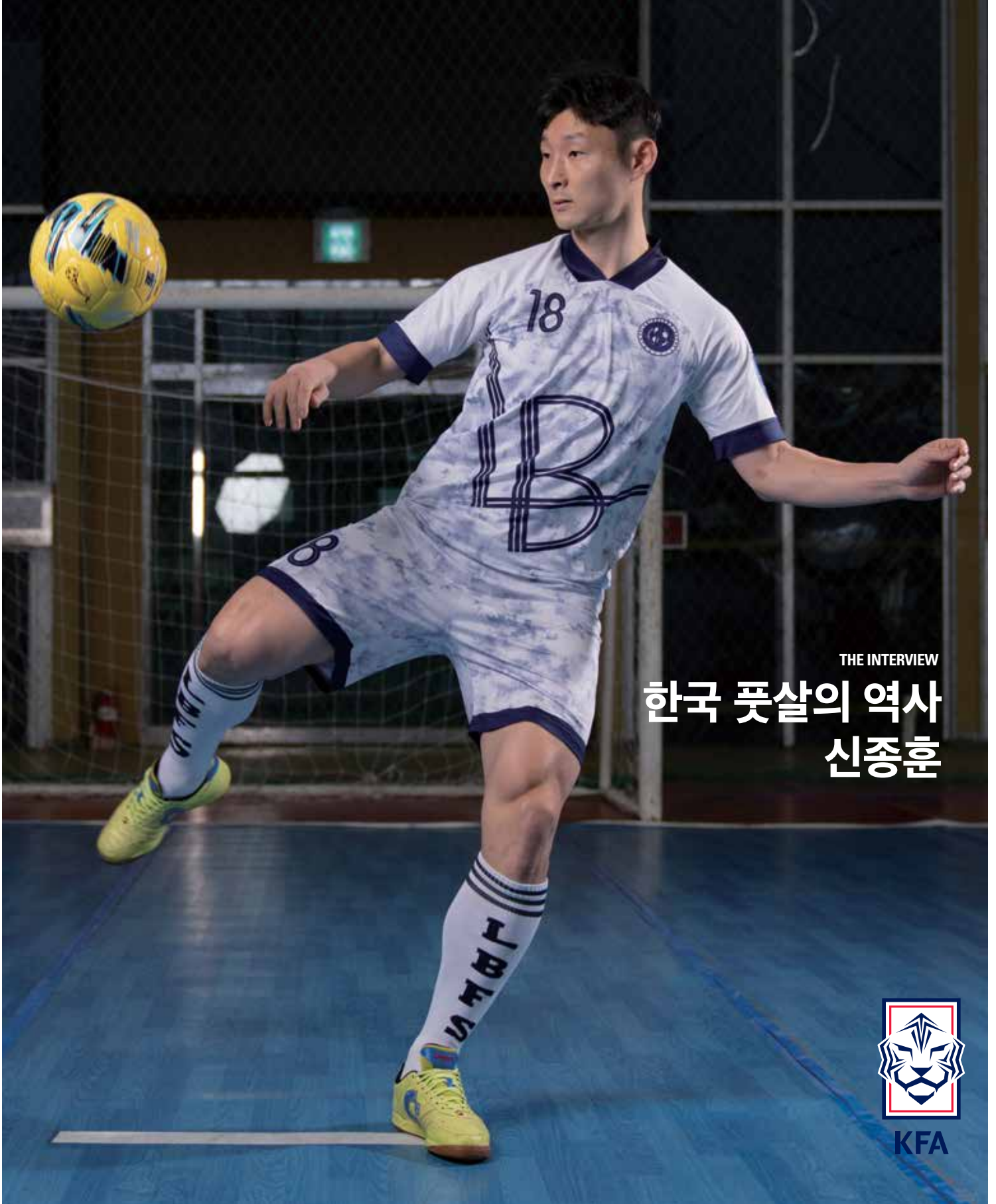
KOREA FOOTBALL ASSOCIATION TECHNICAL REPORT

www.kfa.or.kr

2022

4

VOL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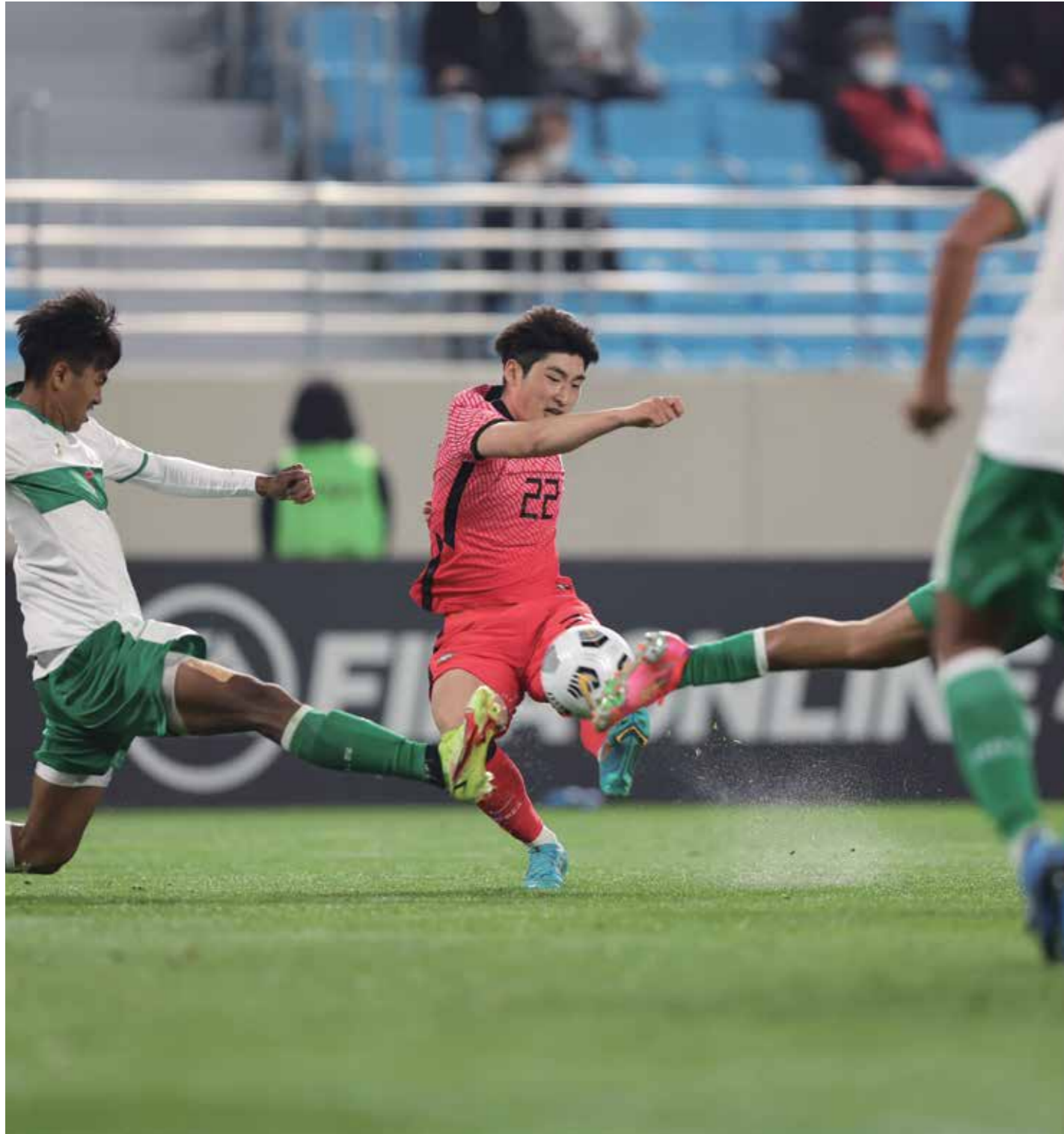


THE INTERVIEW

한국 풋살의 역사 신종훈



KFA



두 명의 다리를 뚫고 간다!

김은중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던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U-19 대표팀 친선경기는 대한민국의 5-1로 승리로 끝났다. 이 경기에서 광주FC의 정중훈이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다. 정중훈이 두 명의 인도네시아 선수 다리 사이로 왼발 슈팅을 날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2022년 3월 29일 / 하나은행 초청 U-19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 DGB대구은행파크 / 대한민국vs인도네시아

이 코너는 KFA 임직원이 유소년 지도자 및 선수를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이야기라도 진심이 담긴 한 마디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4월 호에는 이정섭 경영본부장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2022 KFA 풋볼위크(가칭)를 통해 2002 월드컵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축구협회(KFA)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입니다. 작년 KFA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1본부 6실 19팀의 구성이 2본부 7팀으로 통합됐습니다. 2본부는 현장과 기술파트를 총괄하는 '대회기술본부'와 협회 살림 및 기획을 담당하는 '경영본부'입니다. 저는 마케팅팀, 전략기획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된 경영본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KFA에 있어 여러 가지로 의미 깊은 한해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비롯한 험난한 외부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적인 일상이 정상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2022년은 대회 참가나 경기 관람 등 정상적인 축구 일상으로의 회귀, 그리고 축구를 통해 대통합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월드컵의 해이자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지 2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축구로 하나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에는 2002 한일 월드컵 영광의 순간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의 원년을 만들고자 대한민국 축구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행사(가칭 2022 KFA 풋볼위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칭 2022 KFA 풋볼위크'는 2002 한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해외 탑 클래스 팀과의 초청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형 엑스포 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2002 한일 월드컵 레전드와 함께하는 'Again 2002 프로모션 프로그램' 및 KFA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 컨퍼런스 그리고 클리닉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구 박물관, 축구관련 산업 홍보관 및 이벤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에 우리만의 상징이 된 거리응원을 다시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 축구 대표상품 '거리응원'을 통하여 축구가족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연출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된 힘을 통해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해외 원정 최고 성적 도전에 큰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난 3월 24일 열린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우리는 6만 4천명이 하나된 열정으로 11년 만에 이란을 제압하는 멋진 모습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이 하나됨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올 한해 KFA는 축구팬, 그리고 축구 가족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찬 경기장에서 여러분과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FA 경영본부장 **이정섭**



0304 여자 국가대표팀에
포상금 4억6천만 원 지급

KFA가 지난 2월 인도에서 열린 2022 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월드컵 3회 연속 진출을 이뤄낸 여자 국가대표팀에게 총 4억6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대회 참가 선수 23명과 국내 코치 3명에게는 1인당 1천5백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콜린 벨 감독과 멧로스 코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4월 9일 베트남과 친선경기를 가진다.



0309 FA컵을 달군
하부리그의 반란

2022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에서 하부리그의 반란이 펼쳐졌다. 화성FC(K3)는 대전하나시티즌(K2)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 평창유나이티드(K4)는 안산그리너스(K2)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창원시청축구단(K3)은 서울이랜드FC(K2)에 1-1 무승부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하며 이변을 썼다. FA컵 3라운드는 4월 27일에 열린다.



0313 노원FS-경기LBFS,
FK 슈퍼-드림리그 우승

2021-22 FK리그의 우승팀이 가려졌다. 1부 리그인 한화생명 2021-22 FK 슈퍼리그의 우승은 노원FS가 차지했다. 노원FS는 13승 2패 승점 39점으로 승점 27점인 2위 에스쿠미FS(9승 6패)를 크게 따돌렸다. 2부 리그인 한화생명 2021-22 FK 드림리그에서는 경기LBFS가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LBFS는 신규팀임에도 12전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0315 축구팬의 놀이터
playkfa.com 오픈

KFA가 축구팬들을 위해 새로 만든 통합 마케팅 플랫폼 www.playkfa.com을 공식 오픈했다. playkfa.com은 A매치 티켓 예매, 대표팀 유니폼 구매, 상품 구매, 멤버십 가입 등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4개의 마케팅 플랫폼을 단일화한 것이다. 이번 playkfa.com 오픈을 통해 축구팬들은 KFA의 마케팅 상품 구입을 위해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0317 여대생 클럽리그 홍보대사에
이대훈-최유리 선정

태권도 전 국가대표인 이대훈과 여자 국가대표팀 최유리가 새로 창설된 여대생 축구클럽리그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대훈과 최유리는 4월 3일 개막하는 '2022 신세계 이마트 렛츠플레이 여대생 축구클럽리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리그와 여자축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대훈은 "참가 여학생들을 직접 보니 뜨거운 열정이 느껴진다"며 "의미있는 대회에 첫 홍보대사가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0329 황선홍호,
강원FC 연습경기 3-3 무승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이 강원FC와의 연습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뒀다. 전반에 오현규, 후반에 김민준과 전성수가 골을 터뜨렸다. 이 경기를 끝으로 소집훈련을 끝낸 황선홍호는 오는 6월 AFC U-23 챔피언십,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를 계속 이어간다. 한편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남자 U-19 대표팀은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의 친선전에서 5-1로 크게 이겼다.

CONTENTS

- 6 ISSUE**
P급 지도자 강습회에 가다
- 10 THE INTERVIEW 1**
자동차 컨설턴트로 변신한 좌윤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면 길이 보입니다"
- 14 TACTICAL ANALYSIS**
시메오네식 두 줄 수비,
맨유를 가뒀다!
- 16 THE INTERVIEW 2**
신종훈이 가는 길이 한국 풋살의 역사다
- 20 LOCAL CLUB EPISODE**
대학 동아리의 눈부신 성장, 갯당대FC
- 24 FOOTBALL DEVELOPMENT**
'FIFA 랭킹 1위' 벨기에를 만든 유소년 육성 철학은?
- 26 LEADERSHIP**
위닝멘탈리티, 감독이 하기 나름
- 30 Q&A**
심판강사에게 물어보세요.
- 31 FOOTBALL TRIVIA**
남은 날

ON SIDE
2022 APRIL VOL. 95

발행인 정몽규
편집 및 인쇄 (주)스토리하우스
발행처 KFA 대한축구협회
02-2002-0707

2022년 4월호 표지 모델
신종훈
사진 이연수

ON SIDE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 바른 위치라는 의미로 오프사이드의 반대말입니다. KFA와 한국 축구도 반칙 없이 바른 위치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활약하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구 기술 향상과 정보 제공, 선진 축구 문화 형성을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KSPD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1

2022년 P급 지도자 강습회의 첫 번째 시간이 전북 고창군에서 진행됐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지도자 교육 시스템은 수강생이 주인이 되는 것이 핵심이었다.

“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을 통해 여러 사람의 관점을 공유하고 합의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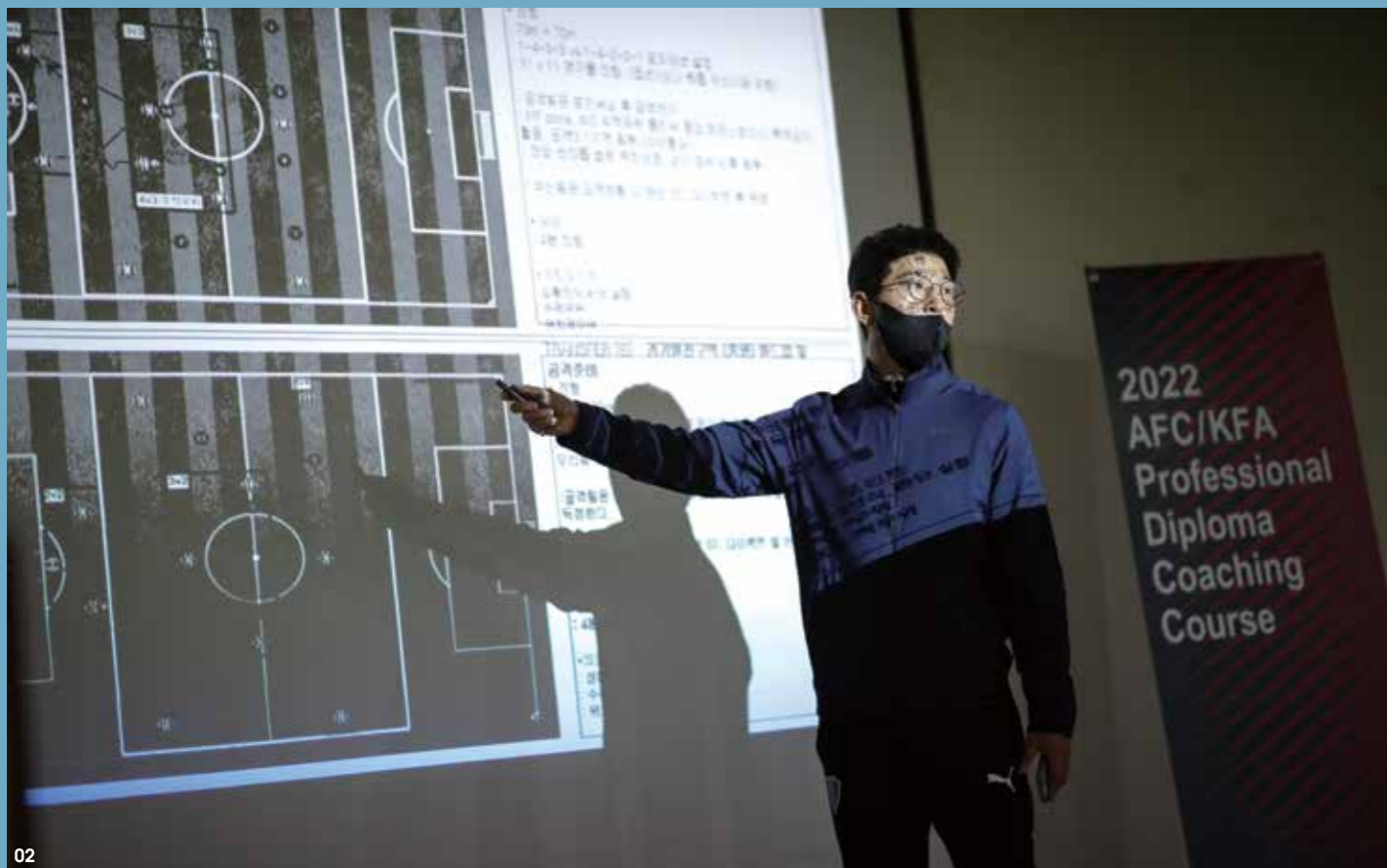
미하엘 뮐러 감사

P급 지도자 강습회에 가다

최상위 지도자 양성 과정인 P급 지도자 강습회가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북 고창군의 고창스포츠타운에서 진행됐다. 올해 P급 지도자 강습회에는 총 24명의 지도자가 참가했다. KFA 전임지도자를 비롯해 프로팀과 실업팀, 대학팀, 고교팀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이들도이다. 이번 강습회는 P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총 9차례의 교육이 예정돼 있다.

P급 지도자 자격증은 AFC가 발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축구 지도자 라이선스다. 바로 아래 등급인 A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자 중에서 고교팀 이상의 팀을 지휘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각급 대표팀 지도자 또는 KFA 전임지도자 경력이 있으면 P급 지도자 강습회 수강 자격이 주어진다. P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시아 각국의 최상위 리그는 물론 국가대표팀까지 지도가 가능하다.

KFA는 AFC로부터 자체적으로 지도자 강습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AFC는 양질의 지도자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한 회원국들이 국가별 특성에 맞춰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도자 교육 인증 협약인 AFC 코칭컨벤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FA는 2020년 4월 AFC 코칭컨벤션 P급 멤버십 가입 승인을 받은 바 있다. P급 멤버십을 획득한 회원국은 해당 국가에서 P급, A급, B급 지도자 자격증 강습회를 진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02

01 P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한 송주희 경주한수원 여자축구단 감독과 이정규 광주FC 코치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02 주승진 수원삼성 코치가 그룹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03 구성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동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는 양영철 전주시민축구단 감독.

04 미하엘 뮐러 강사는 수강생 중심의 교육을 중요시한다.



03



04

수강생 중심의 교육

이번 강습회의 강의는 KFA 전임지도자강사인 미하엘 뮐러, 김남표, 이임생 강사가 맡았다. 하지만 강사의 강의 시간보다는 수강생의 발표 시간이 더 길었다. 이번 강습회는 크게 공격 전술, 수비 전술, 공격 전환, 수비 전환이라는 4개 주제로 이뤄졌고, 4명씩 6개 조로 나뉜 수강생들은 각각의 소주제에 맞는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 조에 속한 수강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다른 수강생들과 강사들 앞에서 발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운동장에서 실제로 훈련을 적용해보는 것이다. 훈련에는 고창북고 축구부 선수들이 대상으로서 참가했다.

2018년 4월부터 KFA와 함께 일하고 있는 뮐러 강사는 수석강사 부임 당시부터 지도자 강습회의 교육방식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힘을 써왔다. 핵심은 강사 중심의 교육을 수강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강사가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생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달라진 지도자 강습회는 강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수강생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이론을 밝히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이 발표를 마치면 강사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보다 구체적인 전술적 주제로 토론을 유도한다. 수강생들은 그룹 활동과 토론, 동료 또는 강사의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강습회에서는 수강생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인상적이었다. 24일 오후 마지막 조인 6조의 수비 전환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자, 수강생 간에 여러 질문과 의견이 오갔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수강생들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막바지에는 김남표 강사가 해당 주제의 포인트를 짚고 관련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

뮐러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강사가 먼저 나서 이론 강의를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답 하나만 가져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토론을 통해 여러 사람의 관점을 공유하고 합의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사의 역할은 수강생들이 진행하는 수업을 지원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뮐러 강사는 “강사는 수강생을 컨트롤하는 입장이 아니다. 수강생들이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고민



01 이번 강습회의 최고령 수강생인 오희천 통진고 감독.
02 김진우 FC김해 U-18 감독이 고창북고 축구부 선수들에게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03 훈련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김남표 강사

할 거리를 던져주는 역할이다. 피드백은 평가가 아니다. 다른 아이들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을 취할 것인가는 수강생의 선택이다. 축구에서는 정해진 정답과 오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은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물론 이전처럼 강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편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입체적인 배움을 얻었다는 반응이다.

이번 강습회의 최고령 수강생인 오희천 통진고 감독은 A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이후 오랜만에 지도자 강습회에 참여했다. 그는 “주입식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수강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한 의도대로 운동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유도해주는 강의라 무척 좋았다”고 밝혔다.

통진고 출신인 손승준 KFA 전임지도자는 옛 스승과 함께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다. 사제지간에는 소감 또한 비슷했다. 그는 “예전에는 강사님이 이론을 내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수강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조금 수동적이었던 이제는 능동적으로 수업에 임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며 달라진 교육방식에 대해 긍정

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다양한 특강도 이뤄졌다. 오성한 KFA 피지컬 코치의 축구 피트니스 특강, 운영길 한국체육대 교수의 스포츠 심리학 특강, 최태욱 남자 국가대표팀 코치의 국가대표팀 운영 특강, 한용수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의 스포츠 산업 특강, 비프로일레븐(Bepro11)의 축구 분석 기술 특강 등이 진행됐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상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된 특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이임생 강사가 자신의 프로팀 감독 경험을 공유하며 노하우와 팁을 전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임생 강사는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와 중국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지도자로서 다양한 문화권의 선수들을 대할 때의 태도를 강조했다. 그는 “프로팀을 맡아 이끌어가다 보면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외국인 선수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이슬람권 선수들의 경우 라마단 기간의 단식 등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문화를 수행하는데, 나 또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법도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이라고 말했다.

현역 기자가 진행한 미디어 대응 스킬 특강도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손승준 KFA 전임지도자는 “이제 감독은 선수에게 축구를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단의 매니지먼트에 관여하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때문에 언론을 대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을 동기부여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철학은 전달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KFA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향후 지도자 강습회에서 진행될 특강의 양과 질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축구가 산업적으로 발달하면서 지도자의 역할 또한 축구 외적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도자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축구를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뮐러 강사는 P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에게 “최상위 지도자인 P급 지도자는 축구에 대한 전술, 전략만 있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방면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강생들의 발전을 독려했다. 

“
프로팀을 맡아 이끌어가다 보면
다양한 국적과 문화권의 외국인 선수들을
만나게 된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법도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

”
이임생 강사



자동차 컨설턴트로 변신한 좌윤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면
길이 보입니다”

현역 시절 '팔색조 미드필더'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좌윤환(31, 개명 전 좌준협)이 은퇴 후 자동차 컨설턴트로 변신했다. 시작은 절박함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여유로워졌다.

절박했다. 먹고 살아야 하나

오현고등학교, 전주대학교를 거쳐 2013년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좌윤환은 넓은 시야와 뛰어난 돌파력으로 팀의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팔색조 미드필더'로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안산경천청(현 안산그리너스), 경남FC, 김포시민축구단(현 김포FC) 등에서 뛰었고 2020 시즌을 마친 뒤 조용히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2년에는 남자 U-23 대표팀 소속으로 AFC U-23 챔피언십 예선에 참가하기도 했다.

은퇴 후 좌윤환은 축구와는 전혀 다른 길로 제2의 인생을 선택했다. 자동차 컨설턴트다. "쉽게 말해 중고차 딜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지만 신차도 판매하고 리스나 장기 렌트도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필요한 것들을 컨설팅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좌윤환은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로를 이쪽으로 잡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사실 그가 자동차 컨설턴트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절박함이었다. 축구를 그만둔 후 좌윤환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절박함으로 제2의 인생을 찾기 시작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다.

"선수 생활 마지막을 김포시민축구단(당시 K3리그)에서 했는데 사실 프로에 있다가 하부리그로 내려간다는 것이 선수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포에 있을 때

계속 축구 외적으로 눈길을 돌렸던 것 같아요. 중고차,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다. "우연한 계기로 중고차 딜러로 일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과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점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일은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도전을 결심했어요. 당시 저희 집이 용인이었는데 이분의 사무실인 부천까지 오가면서 1년 동안 일을 배웠어요."

자동차 컨설턴트의 주된 업무인 중고차 판매는 차량 시세와 흐름을 잘 알아야 하고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영업 스킬도 갖춰야 한다. 좌윤환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매일 유튜브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가며 보고 배웠어요. 요즘 자동차 수요는 어떤지, 시세는 어떤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모두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용인에서 부천까지 오가면서 매일 유튜브를 켜놓고 들었어요. 그렇게 차에 대해서 하나씩 알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히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도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식이나 마찬가지로."

'부딪히보니 별것 아니네!'

좌윤환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빨리 일을 배워서 정착해야 했다. "간절했어요. 저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당시 아기도 돌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부딪혔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축구에 쏟았던 좌윤환은 새로운 직업을 찾고 거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에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수 있지만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었다.

"축구를 하면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선수 생

활을 하면서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에게 '축구를 이렇게 해서 너희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 막상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축구를 그만두더라도 돈을 벌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신을 할 수 없었죠."

"그래도 너무 간절했어요. 저의 축구 선수 생활은 생각보다 성과도 잘 나오지 않았고 매번 쓴맛만 봤잖아요. 선수라면 누구나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저는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축구 말고 다른 진로를 찾았던 것 같아요. 두려움은 컸고 제2의 인생이 성공하리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작 사회로 나와 보니 그동안 가졌던 두려움들은 별것 아니었다. 좌윤환은 편견과 두려움을 깨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막상 그 과정을 지나니 자신감만 남았다고 이야기했다.

"선수 시절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지내고 있어요. 특히 선수 때는 낮잠을 자야 했는데 지금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하고 있죠. 바쁜 생활 패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축구만 바라보면서 살았나 봐요. 밖에 나와 보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잘 몰랐죠."

수원에 위치한 지금의 회사로 옮긴 후 좌윤환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은퇴를 결정하고 자동차 컨설턴트로 진로를 잡을 때 걱정하던 가족들도 이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이혼할 뻔 했어요(웃음). 와이프는 처음에 제가 K3리그에서 뛰다가 지도자를 하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나 너랑 같이 못 산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어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비전이 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현재



까지는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 다행이에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길

좌윤환은 아침에 출근하면 예약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회사로 차량을 불러 오는 고객들을 상대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차량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을 만난다. 영업인 만큼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 중이며 추후 유튜브 채널 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은 고객을 만나는데 플러스 요소다. "예를 들어 창원에 있는 고객을 만나면 예전에 경남FC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사실을 언급해요. 그러면 고객이 저에 대한 흥미를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한국에서 축구가 인기 스포츠 1순위라는 것을 느껴요"


영업에 필요한 친화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현장에서 부딪혀 가며 배웠다. "처음에 자동차 컨설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지인들이 '할 수 있겠냐'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업에 최적화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

런데 저는 백지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배우는 속도가 백지였기에 빨랐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원래 더 빨리 배우는 법이죠"

가다로운 고객들을 상대할 때도 피하지 않고 부딪혔다. "저는 한 브랜드의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를 다루요. 그런데 가끔 특정 브랜드를 집요하게 파고 들고 문의하시는 고객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당할 수가 없어요. 고객을 상대하다 막히면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축구할 때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로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잘 아는 선배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최적의 해결책이죠."

좌윤환은 자동차 컨설턴트로 지내는 지금의 삶을 통해 안정감을 얻었지만 여기서 머무를 생각은 없다. "경제적인 독립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예요. 지인들과 우스갯소리로 마흔 살까지만 일하자고 했죠. 사실 지금도 정말 바쁘게 지내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거나 외박할 일도 찾아서 가족들, 특히 아기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죠."

"마흔 살까지 이 일을 한 후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분야에 도전해볼 생각도 있어요. 물론 아직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동차 컨설턴트 일에 충실해야겠죠. 바쁘고 가끔은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지만 축구 할 때만큼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좌윤환은 진로 문제로 고민 중인 축구 후배들에게 평소 축구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일 것을 조언했다. "축구를 할 때는 당연히 축구에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선수 생명은 길지 않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축구 선수로 사는 기간보다 축구 선수로 살지 않을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평소 축구 말고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진로 선택지가 많아질 거예요." 



01 은퇴 후 자동차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좌윤환
02 좌윤환(가운데)은 현역 시절 '팔색조 미드필더'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아르헨티나 출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아틀레티코마드리드(이하 AT마드리드, 스페인)가 독일인 랄프 랑닉이 임시 감독을 맡고 있는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잉글랜드)를 1, 2차전 합계 2-1로 꺾고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AT마드리드는 시메오네 감독의 트렌드 마크인 검은색 정장만큼이나 확실한 색깔을 제대로 발휘했다.

시메오네식 두 줄 수비, 맨유를 가뒀다!



그리즈만 내린 시메오네의 '신의 한 수'

AT마드리드는 1차전 4-4-2 포메이션과 달리 2차전에는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올 시

즌부터 UEFA 챔피언스리그는 원정 다득점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난 홈 1차전에서 1-1로 비긴 AT마드리드 입장에서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었다. 전반 20분까지만 해도 맨유가 우위를 잡았다.

수비시 5-3-2로 나선 AT마드리드의 '3'에 해당하는 중원의 양 측면을 공략하며 찬스를 만들어 나갔다. 지난 1차전에서 후반 막판 동점골을 내주며 비긴 AT마드리드에게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시메오네 감독은 곧바로 대응했다. 5-3-2에서 3명의 미드필더가 일자로 서서 좌우로 슬라이딩하듯 수비하면 상대방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할 경우 뛰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맨유가 이 지점을 잘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자 시메오네 감독은 양투안 그리즈만을 측면으로 한 계단 내려 5-4-1로 수비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다. 2선 측면의 공간이 없어지자 맨유의 팀 스피드, 볼 스피드는 현저히 느려졌다.

AT마드리드의 공격은 카운터어택에 의존했다. 내려선 수비를 하는 AT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긴 거리를 달리며 빠르게 역습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팀 조직력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AT마드리드 선수들의 볼 관리 능력이 이를 가능케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카운터 전술은 빠르게 플레이를 전개하기 때문에 볼을 빼앗자마자 다시 뺏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역습의 위력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AT마드리드 선수들은 개인 기술이 좋아 볼 관리가 된다. 그러니 동료들이 공격에 가담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되고, 크로스과 마무리까지 돼 방점을 찍는 것이다.

임시감독의 장악력 떨어지는 맨유

맨유가 전술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상대에 따라 재빨리 대응한 시메오네 감독과 달리 랑닉 감독은 소극적이었다. 0-1로 뒤진 후반 막판 에딘손 카바니를 투입하며 4-4-2, 후반 마타를 투입하며 공격적인 스리백을 썼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임팩트가 없던 제이든 산초를 풀타임 출전시킨 대목도 의아하다. 랑닉 감독은 오히려 후반 중반 안토니 엘랑가를 빼고 래시포드를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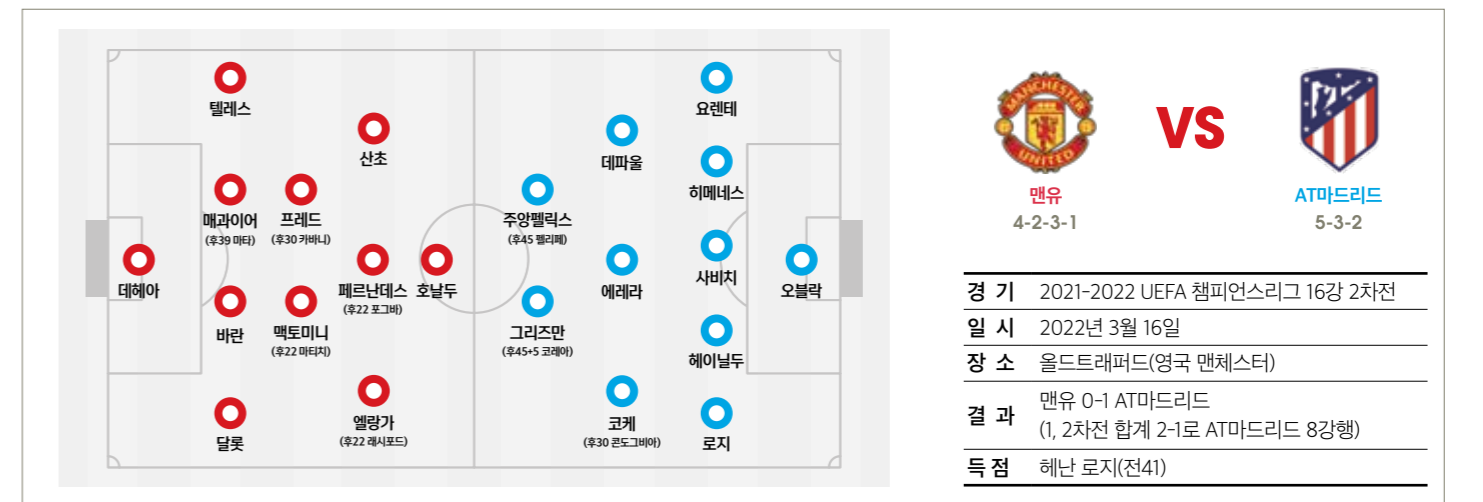
맨유는 공격시 엘랑가와 디오고 달랏이 있는 오른쪽 측면이 눈에 띄었다. winger 엘랑가가 넓게 벌려서 수비를 따라오게 하면 풀백인 달랏이 중앙으로 침투하는 방식이었다. 경기 초반에는 이 쪽에서 솔로 플레이 및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찬스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AT마드리드가 그리즈만을 내리며 대응하자 이후에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맨유의 수비에서는 특정한 패턴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실점 장면만 눈에 들어왔다. 양 측면 풀백의 실수가 컸다. 1차전과 비교해 풀백 두 명이

모두 바뀌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선제골이 나오기 전, 마르코스 요렌테의 오프 사이드로 주앙펠릭스의 득점이 무산된 찬스에서 왼쪽 풀백 텔레스의 움직임이 아쉬웠다. 중앙 수비수 해리 매과이어가 전진하면서 비게된 공간으로 AT마드리드의 침투 패스가 들어올 때 텔레스는 측면에서 뛰어오는 요렌테를 향해 몸을 틀었다가 뒤늦게 골대로 뛰어 들어갔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스루패스가 들어올 때 상대 선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골장 우리 팀 골키퍼를 바라보며 뛰어가서 볼이 들어올 공간을 먼저 장악한 뒤에 측면으로 다가가는 것이 정석이다.

골을 허용할 때는 오른쪽 풀백 달랏의 위치 선정이 문제였다. 달랏은 공이 날아오는 쪽만 바라보다가 자신의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헤난 로지를 놓치고 말았다. 로지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다면 볼과 선수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바디포지션을 취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크로스가 왔다면 최소한 로지의 헤더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경합을 펼칠 수 있었다. 맨유 레벨의 선수들에게는 나와선 안 될 실수가 두 번이나 나왔다. **ON**



신종훈이 가는 길이 한국 풋살의 역사다

알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이 길을 걷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신종훈(32, 경기LBFS)이 오늘도 풋살화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이유다.

과거 생활체육 성격이 짙었던 풋살은 2009년 FK리그 출범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식 스포츠로 판이 깔리면서 풋살 자체의 수준이 한 단계 진화했고 스타들도 여럿 배출됐다.

신종훈은 그중에서도 대표주자였다. 한국 풋살을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다. 간결하고 깔끔한 플레이와 강한 슈팅으로 팀 공격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신종훈은 FK리그 초창기부터 초대형 신성으로 주목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역대 FK리그에서 신종훈은 득점상 두 차례(2009-10, 2010-11), MVP는 무려 세 차례(2011-12, 2013-14, 2014-15)를 차지했다. 리그 우승 경험만 최근까지 총 일곱 번이다. FK컵에서도 2015년 득점상, 2018년에는 MVP를 수상했다. 명실공히 한국 풋살의 최고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사실 단순히 기록만으로 신종훈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의미 있는 도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2013년 일본 풋살리그, 2017년과 2021년에는 중국 풋살 리그에서 뛰면서 한국 선수 최초로 한중일 풋살 리그를 모두 경험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에 용감히 발을 내딛으며 후배들을 위한 이정표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풋살에 있어 신종훈의 존재는 특별하다. 어느덧 선수 생활 후반기에 접어든 그는 자신의 경험과 열정을 끝까지 쏟아내 한국 풋살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다.

최근에 새로운 팀에 입단했다.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2021년 말에 국내로 돌아와 신규팀인 경기LBFS에 입단했다. 최근 열린 2021-22 FK 드림리그에 참가했는데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원래 전승 우승을 목표로 이번 리그에 참가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좋은 선수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나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경기LBFS는 어떤 팀인가?

경기도 용인시를 연고로 하는 팀이다. 풋살팀 최초로 연봉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구단(엘엔디엔자임)인데 단장님이 평소 풋살에 관심이 많으셔서 팀까지 창단했다고 들었다. 연봉을 받으면서 될 수 있는 팀이기에 김호진, 이민용, 정한국 등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주-경기LBFS의 LB는 Luminous Bridge(빛나는 다리)

의 약자로 대중과 풋살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뜻을 지녔다).

어떻게 경기LBFS에 들어오게 됐나?

아는 선후배 선수들이 팀에 많이 있었다. 선수들, 단장님, 팀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팀이 가진 비전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마음이 끌렸다. 게다가 팀이 인프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현재 경기LBFS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풋살 센터를 용인에 건립 중인데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다.

베테랑 선수인만큼 팀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을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선은 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먼저다(웃음). 후배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기LBFS에 있으면서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 최근 FK드림리그 우승 후에는 구단에서 따로 우승 기념 파티를 열어줬는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라 새로웠다. 선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려는 구단의



노력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동기가 저절로 생기더라.

이제 옛날이야기를 해보자. 선수 커리어의 시작이 축구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해 고등학교까지 했다. 초창기에는 골키퍼였다. 지금 풋살에서는 골키퍼 빼고 다 한다(웃음). 몸을 던지면서 날아오는 슈팅을 막는 것이 재미있어서 골키퍼로 축구를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더라. 그래서 6학년 때 필드 플레이어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가지 일로 진로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구를 놓게 됐다. 그 당시만 해도 축구는 아예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 풋살장에 나갔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풋살이었는데 하다 보니 축구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꾸준히 풋살을 했고 생활체육 대회까지 출전하게 됐다.

그러다가 2009년에 FK리그가 출범했다.

풋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이 있었다. 이분이 서울에 풋살팀을 만들 예정이고 FK리그에 참가할 건데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참가하게 됐다. 당시만 해도 풋살 선수가 됐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았다. 취미로 즐기던 풋살이었는데 정식 리그가 된다는 것이 행복했다.

리그 초창기부터 뛰어난 성적으로 두각을 보였다.

사실 내가 크게 잘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ONside> 거짓말!). 아니, 진짜다. 그저 축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풋살로 잊게 되는 것이 좋았다. 재미있었다. 너무 재미있으니 더 잘하고 싶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초창기만 해도 풋살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학적,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몸 관리를 충실히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따로 했다. 무엇보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긴 시간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운동을 시작해 밤 9시에 끝날 정도로 당시에는 풋살에 미쳐 살았던 것 같다.

국내에서는 FS서울과 전주매그풋살클럽에 있었는데?

FS서울에 있었을 때는 막내였다. 워낙 좋은 기량을 가진 형들이 많았고 그 형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배움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형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전주매그풋살클럽 시절에는 이영진 전 감독님이

게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이전에는 개인 기량만 가지고 풋살을 했다면 이영진 전 감독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풋살의 세밀한 부분까지 캐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풋살을 보는 눈은 한 단계 발전시킨 셈이다.

2013년 일본 풋살리그에는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됐나?

당시 내가 있었던 전주매그풋살클럽과 일본 나고야오션스라는 팀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다. 그래서 비시즌에 친선경기 초청을 받아 일본을 가게 됐다. 나고야오션스의 단장, 사장님이 경기를 보고 내게 일본에서 뛰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사실 나고야오션스라는 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일본이 풋살 선진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받아들여지게 됐다.

도쿄에서 개막전을 했을 때 관중이 5천 명 이상 들어왔다. 5천 명 앞에서 뛰는 것은 처음이라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웃음). 그만큼 인상적이었다. 적응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팀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1년을 잘 버틸 수 있었다.

중국 풋살리그 경험도 듣고 싶다.

중국도 먼저 제안을 받고 나가게 됐다. 2017년에 칭다오첸시, 2021년에 허베이푸미클럽에 있

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지 적응은 쉽지 않았다. 통역이 있었지만 중국어를 잘하지 못했고 음식도 잘 안 맞아서 체중도 2kg 넘게 빠졌다. 코로나19 문제도 있었다.

중국 풋살은 일본보다 객관적인 실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투자를 많이 하기에 리그 운영을 잘하고 있다. 선수들이 모두 연봉을 받고 있고 인프라도 괜찮았다. 풋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한중일 풋살리그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한국 선수다.

아직 한국 풋살의 수준이 상위 레벨이 아니다 보니 해외로 선수가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나 자신도 일본과 중국, 한국에서 풋살 리그를 모두 경험해본 것이 다시는 갖지 못할 이력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중국 풋살리그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도 있을 텐데?

결국 풋살을 향한 관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풋살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일본, 중국도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FC 풋살 챔피언십 동아시아 예선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내가 기억하는 최고 성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본, 중국에서 직접 뛰면서 환경이 얼마나 좋은 선수를 만들어내는지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다.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한다. 곧 2022 AFC 풋살 아시안컵 예선을 대비한 소집훈련이 진행되는데 나도 참가할 예정이다. 베테랑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려고 한다.

선수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

다. 일단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에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풋살 지도자보다는 행정가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각 나라와 활기차게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풋살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바꾸는데 힘이 되고 싶다.

풋살이 사랑받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한다. 좋은 선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나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ON



01



02

01 신중훈은 한국 풋살의 인기가 대표팀의 성적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02 경기LBFS에서 선수 생활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신중훈.

PROFILE

생년월일 : 1990년 1월 23일
신체조건 178cm 80kg
포지션 FIXO(최중 수비수)
주요 이력 FS서울(2009~2010), 전주매그풋살클럽(2010~2012, 2013~2016, 2018~2021), 나고야오션스(일본, 2013), 칭다오첸시(중국, 2017~2018), 허베이푸미클럽(중국, 2021), 경기LBFS(2022~)

대학 동아리의 눈부신 성장, 갯당대FC



01 대학 동아리로 출발한 팀이 목포시를 대표하는 동호인 축구 팀이 됐다. 갯당대FC(이하 갯당대)는 이제 전남권역을 넘어 전국 무대 진출을 꿈꾸고 있다.

대학 동아리로 출발한 팀

갯당대는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초당대의 축구 동아리로 출발한 팀이다. 2018년 창단해 2019년 K7리그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2019년 목포시 K7리그에서 6개 팀 중 2위를 차지했고, 이듬해인 2020년 K6리그로 무대를 옮겼다. 당시만 해도 초당대 재학생들로 이뤄진 대학 동아리였던 갯당대는 K6리그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점차 구성원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현재는 초당대 축구 동아리 갯당대와 별개로 운영되는 어엿한 동호인 축구팀이 됐다.

창단 때부터 함께 해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던 박유근 씨는 현재 갯당대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재학생들이 모여 축구를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이 필요했다. 당시에도 동아리 외에 다들 각자 조기축구회를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이제는 초당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더 많다. 세한대, 원광대 등 호남 지역 대학팀에서 엘리트 축구를 하던 선수 출신들도 많이 영입됐다”고 설명했다.

경쟁력을 키운 갯당대는 K6리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이어갔다. 2020년 K6리그 전남B권역에서 6개 팀 중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승격 플레이오프 기회를 얻게 된 갯당대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네 팀의 토너먼트로 진행된 플레이오프에서 갯당대는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강진군YB와의 결승전이 압권이었다. 갯당대와 강진군YB는 정규 시간 동안 세 골을 얻치락뒤치락 주고받는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로 희망을 살리며 3-3을 만든 갯당대는 승부차기에서 5-4 승리를 거두며 승격에 성공했다. 극적인 승리에 구성원 모두가 도취했던 순간이었다.

당시 경기에 출전했던 김동중 씨는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그는 “마지막 동점골이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뻐했다. 그래서인지 승부차기에서 긴장되긴 했지만 우리가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극적으로 K5리그 승격을 이루게 돼서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K7리그에 참가하는 대학 동아리는 종종 있어왔다. K6리그로의 승격

LOCAL CLUB EPISODE



02



03

“ K5리그에서 선수 출신들과 경기를 하다 보니
마치 현역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K7리그나 K6리그와 비교해
확실히 수준이 높았다. ”

김동중

- 01 초당대 축구 동아리로서 K7리그에 참가했던 2019년의 갯당대.
- 02 K6리그에 참가했던 2020년의 갯당대.
- 03 K5리그에 참가했던 2021년의 갯당대.

을 이뤄 좋은 성적을 내는 대학 동아리도 있기는 하지만 팀을 키워 K5 리그에까지 진출한 것은 갯당대가 처음이다. 갯당대는 2021년 K5리그 광주·전남권역에서 6개 팀 중 3위를 차지했다.

처음으로 경험한 K5리그 무대는 K6·7과는 전혀 달랐다. 박유근 씨는 “K5리그에는 프로 출신을 비롯해 선수 출신이 대부분 뛰고 있다. K6 리그까지는 주말에 몇 번 호흡을 맞춰보는 걸로 충분했지만 K5리그는 그렇지 않았다. 팀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 관리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때까지 엘리트 축구를 했던 김동중 씨에게도 K5리그 경험은 좋은 자극이 됐다. 그는 “K5리그에서 선수 출신들과 경기를 하다 보니 마치 현역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K7리그나 K6리그와 비교해 확실히 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리그 초반에 팀 전체적으로 조금 주눅이 들었던 것 같다. 경기를 치르면서 자신감을 찾았는데, 처음부터 자신감 있게 했다면 더 좋은 성적을 거뒀을 것”이라며 지난해를 돌아봤다.

젊은 패기로 축구를 즐긴다

갯당대가 대학 동아리로 출발한 팀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구성원들의 연령대다. 이제는 모두 대학생이 아닌 사회인이 됐지만 여전히 20대 중후반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갯당대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젊은 감성도 그 덕분이다. ‘갯’은 최근 젊은 세대들이 ‘최고’라는 의미 많이 사용하는 ‘신(god)’을 뜻한다.

동호인 축구에서 젊다는 것은 더없는 강점이다. 디비전리그의 경기 시간은 K7리그 60분, K6리그 70분, K5리그 80분으로 점점 늘어나는데, 승격한 팀들이 첫 해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체력이다. 하지만 갯당대는 체력 면에서 강점을 보이며 큰 부침 없이 초고속 승격을 이뤘다.

갯당대는 20대의 팔팔한 체력과 패기로 올해도 K5리그 무대에 나선다. 김동중 씨는 “함께 하는 30대 초반 형들도 다들 몸이 좋다. 다른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체력 하나는 자신 있다. 심심하다”며 웃었다.

박유근 씨는 “젊은 또래 친구들이 모인 팀인 만큼 분위기가 늘 좋다. 아직 역사가 짧은 팀이긴 하지만 서로 친하고 유대감이 깊다. 초당대



“ 친구들과 FA컵에 나가면 어떨까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가서 엄청 깨지더라도 후회 없이 도전해보고 싶다. ”

박유근



01 갯당대는 2020년 K6리그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차지해 K5리그로 승격했다.
02 20대 중후반이 주축을 이룬 갯당대의 강점을 체력이다.
03 FA컵은 갯당대 구성원들에게 꿈의 무대다.

축구 동아리로 시작된 팀이긴 하지만 이제는 출신에 관계없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FA컵에 나갈 때까지


갯당대의 포부는 크다.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울러 최고의 팀을 가리는 FA컵에 참가하는 것이다. K5리그에서 권역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다음해 FA컵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갯당대가 곧 개막할 2022년 K5리그 전남권역에서 우승을 하겠다는 목표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다.

김동중 씨는 “선수 시절에도 FA컵에 나가본 적은 없다. 동호인으로서 FA컵에 참가하게 된다면 정말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설렘을 드러냈다. 그는 “물론 상위리그 팀들과 대결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 수 있겠지만 그 경험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 하나로 갯당대를 이끌어오고 있는 박유근 씨 역시 FA컵 참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어린 시절 꿔던 축구선수라는 꿈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그는 디비전리그에 참가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만큼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박유근 씨는 “김치국 마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FA컵에 나가면 어떨까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회인 만큼 참가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나가서 엄청 깨지더라도 후회 없이 도전해보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해 갯당대가 참가한 K5리그는 광주·전남권역 통합 리그였지만 올해는 광주권역과 전남권역이 따로 진행된다. 지난해 K5리그 광주·전남권역에서 갯당대보다 상위에 랭크됐던 광주서구 효창FC, 광주서구화정FC는 모두 올해 광주권역에 참가하고, 갯당대는 전남권역에 참가한다.

박유근 씨는 “친구들 모두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고 올해는 꼭 우승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 매주 연습경기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대학 동아리로 출발한 팀이 FA컵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FIFA 랭킹 1위’ 벨기에를 만든 유소년 육성 철학은?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2018년 해외 선진 축구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잉글랜드와 벨기에를 방문했다. 당시 조사한 내용을 ONSIDE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더불어 벨기에 루벤 대학교에 의뢰해 연구한 끝에 2002-2003 시즌부터 5-7-9-11인제로 바뀌던 시스템을 5-8-11인제로 정비했다.

벨기에 F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 이제 그들은 더 어린 연령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운동하는 40~60%의 아이들이 12세가 되기 전에 운동을 그만 둔다는 것과 '3~8세에는 특화된 운동보다는 기본 움직임에 대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호에서 우리는 잉글랜드의 축구 시스템과 유소년 육성 철학을 살펴보았다. 이번 4월호에서는 벨기에의 유소년 육성 철학과 세분화된 스몰 사이드게임(SSG)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벨기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창설 7개 회원국 중 하나이며, 축구 전통이 오래된 국가다. 나라의 인구는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의 절반 가량인 1100만명 가량에 불과하며 영토도 우리나라에 비해 작다. 하지만 그런 벨기에가 지난 2월 기준으로 FIFA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2019년 1위로 올라선 이후 계속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중이다.

벨기에는 지난 1998 프랑스 월드컵과 공동 개최한 유로 2000 대회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 벨기에 축구를 바꾸기 위해서는 축구 피라미드의 가장 기초 단계인 5세부터 13세까지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를 위해 벨기에 FA는 지도자 교육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다. FC바르셀로나의 훈련 철학을 빌려 모든 유소년 팀이 같은 진형(4-3-3)으로 훈련받게 했고, 연습경기는 드리블을 통해

이러한 특징에 맞춰 5인제를 시작하는 8세 전인 5~7세에 맞는 운동 방법을 고안하게 됐다. 축구에 특화된 운동이 아닌 기본 운동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2, 3인제가 여기서 탄생했다. 2인제는 2014년, 3인제는 2018년에 시작됐다. 5세 때는 기본 운동 스킬을 배우고, 6세가 되면 2인제를 통해 드리블과 슈팅에만 집중하고, 7세가 되면 3인제로 패싱을 통해 단체 플레이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5~7세 선수들은 '특화된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기본 움직임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멀티 무브나 멀티스킬즈'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벨기에처럼 5~7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2, 3인제나 기본 운동 스킬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 클럽에 한정되었으며 여전히 성적 위주로 팀이 운영되는 문화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선진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팀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닝멘탈리티, 감독이 하기 나름

‘위닝멘탈리티’란 상대가 누구든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뜻한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독이 하기 나름이다.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다. 상대와 실력 차가 있다고 해도 분위기를 타면 언제든 이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잘 나가는 강팀도 여러 가지 변수로 분위기가 꺾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닝멘탈리티는 약팀도 강팀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이다. 자신감이 총만한 상태로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면 상대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보이던 팀들을 살펴보면 위닝멘탈리티가 팀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를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이들을 가장 높은 곳까지 이끈 셈이다.

위닝멘탈리티는 감독과 선수의 합작품이다. 서로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수장인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독은 선수들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빠르게 읽어야 하며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라

경기도 의정부시를 연고로 하는 클럽팀 광동 U18은 지난 2월 고성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프로 유스팀인 대건고를 꺾고 정상에 등극했다. 2017년 말 팀 창단 후 전국대회 첫 우승이다.

광동U18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행보는 놀라

웠다. 대전유성생명과학고, 천안제일고, 용인시 축구센터U18덕영 등 강팀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정상을 향해 질주했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프로 유스팀 대건고를 이기며 마침내 저력을 증명했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광동U18을 우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들은 실력으로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양현정 감독은 “코로나19와 부상으로 일부 선수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준비한 만큼만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여준 것이 우승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양현정 감독은 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는 소통으로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 위닝멘탈리티를 높이기 위해 선수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양현정 감독은 “위닝멘탈리티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 팀은 경기에 뛰는 선수, 안 뛰는 선수 모두가 똘똘 뭉쳤다. 코칭스태프까지 모여서 훈련 전후로 파이팅을 외쳤다. 수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용인시축구센터U18덕영과의 8강전이 고비였다. 사전에 철저한 영상 분석과 미팅으로 이들이 강팀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이는 대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동계 훈련 때부터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다”고 밝혔다.



양현정 감독

2월 군산에서 열린 2022 금석배 전국중학생축구대회에서 18년 만에 정상에 등극한 경신중도 우승의 원동력에 워닝멘탈리티가 있었다. 최진영 감독은 “팀 전체가 한마음으로 뭉쳤던 것이 우승으로 이어졌다”며 “아직 어린 나이의 선수들인 만큼 다른 것보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력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하고 상대가 잘하는 것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길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최진영 감독은 조금 더 확실한 동기 부여를 위해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감독은 “대회를 시작하기 전 선수들에게 내가 직접 수당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한 골 당 만 원,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을 경우 3만 원, 실점하더라도 승리하면 5만 원을 주는 식이다. 목표 의식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탑을 쌓듯 차근차근

축구 실력과 정신력 강화는 탑을 쌓아가듯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워닝멘탈리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독의 정성이 쌓이고 쌓여야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선수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만드는 것은 감독의 역량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닝멘탈리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평소 감독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만들어진다. 물론 감독도 사랑이기에 매번 선수들과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유소년 레벨에서는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워닝멘탈리티와 동기 부여가 기량만큼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점을 신경 써야 한다.

양현정 감독은 “내가 선수였던 시절에는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욕먹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억지로) 했었다. 지도자가 된 후 지금 선수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왜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땀뿜 뭉쳐야 하는지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도와줬다. 그게 워닝멘탈리티를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때로는 워닝멘탈리티를 키우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 벽에 부딪힐 때도 있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축구도 마찬가지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부딪혀 난관에 빠질 때는 단순한 동기 부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위기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최진영 감독은 “우리 팀의 경우 사춘기를 겪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매 순간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않고 분위기가 떨어졌을 때도 질책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소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준다. 꾸준한 격려가 워닝멘탈리티를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양현정 감독은 선수가 스스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양 감독은 “기술적인 훈련만큼이나 정신력 훈련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 단체채팅방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나의 경험담을 자주 풀어준다. 만약 누가 잘못을 했을 경우 절대로 그 선수에게 질책을 하지는 않지만 그 선수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는 하고 있다. 그래야 선수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팀 분위기도 다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유소년 레벨에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워닝멘탈리티의 개념을 쌓았다면 대학 레벨에서는 조금 더 강한 정신력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프로 진입 전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우승팀인 호원대 홍광철 감독은 “선수라면 때로는 도전적인 플레이와 위험 감수도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대학 레벨 선수들은 안정적인 플레이만 하려고 한다. 정신력도 약한 선수들이 많다. 습관적으로 ‘멘탈이 나갔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 때 강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유소년 때와는 다르다. 내가 볼을 뺏기면 동료들이 다시 뺏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야 한다. 소극적인 플레이는 안 된다. 실제로 이번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도 청주대, 용인대 등 강팀들을 만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노력 덕분이다. 경기장에서 동료를 믿고 과감한 플레이를 펼쳐야 워닝멘탈리티와 성적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워닝멘탈리티를 만든다

칭찬은 모두를 춤추게 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그 속에 뼈를 숨기는 것이 워닝멘탈리티와 선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감독은 좋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분위기는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도 있어야 한다.

‘잘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오늘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등의 발전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선수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대가 바뀐 만큼 강압적인 어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워닝멘탈리티라는 자산은 모든 요소가 조금씩 더해진 결과물이다. 감독의 노력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최진영 감독은 “객관적인 실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팀을 만나게 되면 쉽게 주눅들 수 있다. 어린 선수들일수록 그렇다. 그때는 지더라도 멋지게 쳐보자고 이야기한다. 대신 이 경기를 통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보

자고 한다. 부족한 실력은 금방 채울 수 있지만 선수들의 자신감을 키우는 것은 정성이 필요하다. 지더라도 성의있게 최선을 다해야 워닝멘탈리티를 잃지 않는다”고 했다.

양현정 감독은 “워닝멘탈리티를 위해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선수들에게 보여주면 존중받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선수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자가 강제로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면 워닝멘탈리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ON



홍광철 감독



최진영 감독(왼쪽)

심판강사에게 물어보세요.

보고 또 봐도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축구 규칙이다. 선수와 지도자들의 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유병섭, 강창구 KFA 전임 심판강사에게 물었다.



강창구 심판강사

유병섭 심판강사

Q1 얼마 전 K리그 경기에서 본 장면입니다. A팀의 선수가 중거리 슛을 했는데 볼이 주심의 등을 맞고 날아갔고, 이 볼을 B팀의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A팀의 선수들은 드롭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속행했습니다. 규칙상 A팀의 선수가 터치한 볼이 심판의 몸을 맞고 B팀 선수의 소유로 가면 드롭볼로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상대 골문을 향해 슈팅한 볼은 해당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건가요?

드롭볼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인플레이 중 경기장 안에서 볼이 심판에 터치되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마지막에 터치한 팀의 한 선수에게 심판이 터치된 장소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하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이 심판에 맞고 직접 골이 되었을 때, 볼이 심판에 맞고 어느 한 쪽의 유망한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볼의 소유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런 규칙의 변화는 공정성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판에 볼이 맞았을 때 심판을 무형의 물체로 보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심판에 맞고 좋은 공격으로 연결되거나 골이 되어도 그대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수정하여 드롭볼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질문에서처럼 슛한 볼이 심판에 맞고, 이 볼을 상대 골키퍼가 잡았다면 소유가 바뀌었으므로 심판이 맞은 지점에서 킥을 한 팀의 한 선수에게 드롭볼로 재개해야 합니다. 드롭볼에 참여하는 선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는 드롭볼 지점에서 4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Q2 주심이 프리킥 휘슬을 불었을 때, 프리킥 권한을 얻은 팀이 상대 팀이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재빨리 경기를 재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심이 이런 빠른 재개를 허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주심이 다시 휘슬을 불어 이를 제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심이 빠른 재개를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빠른 프리킥을 말씀하시는군요. 프리킥 재개 때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재개하여야 하며, 이때 상대 선수는 볼에서 9.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상대 선수가 9.15m를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칙을 당한 팀은 빠른 재개를 할 수 있는데,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9.15m 안에 있던 상대 선수는 빠른 프리킥을 방해할 수 없으나 가까이 지나가는 볼은 가로챌 수 있습니다.

빠른 프리킥을 제지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움직이는 볼을 찾거나 프리킥 지점이 다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칙 지점보다 상대의 골문에 가까이 가면서 즉각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지할 것입니다. 정확한 지점에서 정지된 볼을 차서 움직였다면 정상적인 인플레이이므로 재개를 제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원래 위치보다 자신의 골문에 가깝게 이동해서 프리킥을 한다 해도 제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기 운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ON

※ 규칙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kwontj@kfa.or.kr로 문의해주세요.

남은 날

재성
연패를 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구단은 감독에 대한 인내심을 잃는 것 같아.

흥민
구단 성적이 좋지 않으면 경영면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니까. 그래서 시즌 중간에 감독 교체를 단행하기도 하잖아.

재성
감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겠네?

흥민
맞아. 구단의 고용 정책이 가혹하다면 말이야. 감독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하겠지.

재성
영어로 하면 Time is up! 그렇지?

축구만큼 글로벌(global : 세계적인)한 스포츠는 없다. 축구를 통해 배우는 영어회화로 글로벌한 축구인이 돼보자. <한 권으로 읽는 축구영어>에서 유용한 표현을 엄선했다.

명사 number(수, 숫자)는 동사로서 ‘~을 세다’, ‘~에 번호를 매기다’ 등의 뜻도 가지고 있다. **be numbered**라고 하면 ‘수 또는 기간이 정해지다, 제한되다’라는 의미다. 남은 날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는 말을 **one's days are numbered**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당 팀과 감독의 경기력과 상황 변화를 주시한다. 일종의 실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이때 ‘현미경 아래에 놓이다’라는 의미의 **be under the microscope**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경우에도 그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be in the dark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어둠 속’을 의미하는 in the dark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를 말한다. ON

예문 01 My days are numbered.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예문 02 The manager has been under a lot of pressure because of poor result. I am sure that he will be under the microscope from now on. 그 감독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인해 큰 압박을 받아왔다. 내가 보기에 그는 이제부터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예문 03 Pochettino is now in the dark after PSG lost the last two important league matches. PSG가 지난 중요한 두 리그 경기에서 모두 패배한 뒤 포체티노 감독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영원히 퇴장당하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축구 인생은 없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승부
조작

금품
수수

폭력
폭언



대한축구협회 KFA 신문고센터

· 사이트 : www.kfa.or.kr

스포츠 윤리센터

· 사이트 : www.k-sec.or.kr · 전화 : 1670-2876



대한축구협회